

세종시 보증금컵 무인회수함 최적입지선정



세종시 일회용컵 무인 회수함 현황

일회용컵 회수기는 어디에...컵 4개 중 1개만 돌아왔다

한국경제 원문 | 기사전송 2023-07-23 18:15 | 최종수정 2023-07-31 16:46

사회

'다회용컵 반납 번거로워'...10개 중 3개
안돌아왔다

제 역할 못하는 공공반납처..."회수율 높일 대책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반납 번거로워"... 카페 컵 70% 안 돌아왔다

"무엇을", "왜" 개선해야 하는가?



1



2



3



4

세종시 무인 회수함은 지자체,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만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

세종시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40% 내외로 낮은 편이다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반납 번거로움을 해소해야 한다.

회수함 위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선입지선정이 불가피하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2022년 12월 2일부터
선도지역(세종, 제주)
시행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한 음료를 구입 후
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매장에 1회용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돌려드립니다.

당신이 반한
1회용 컵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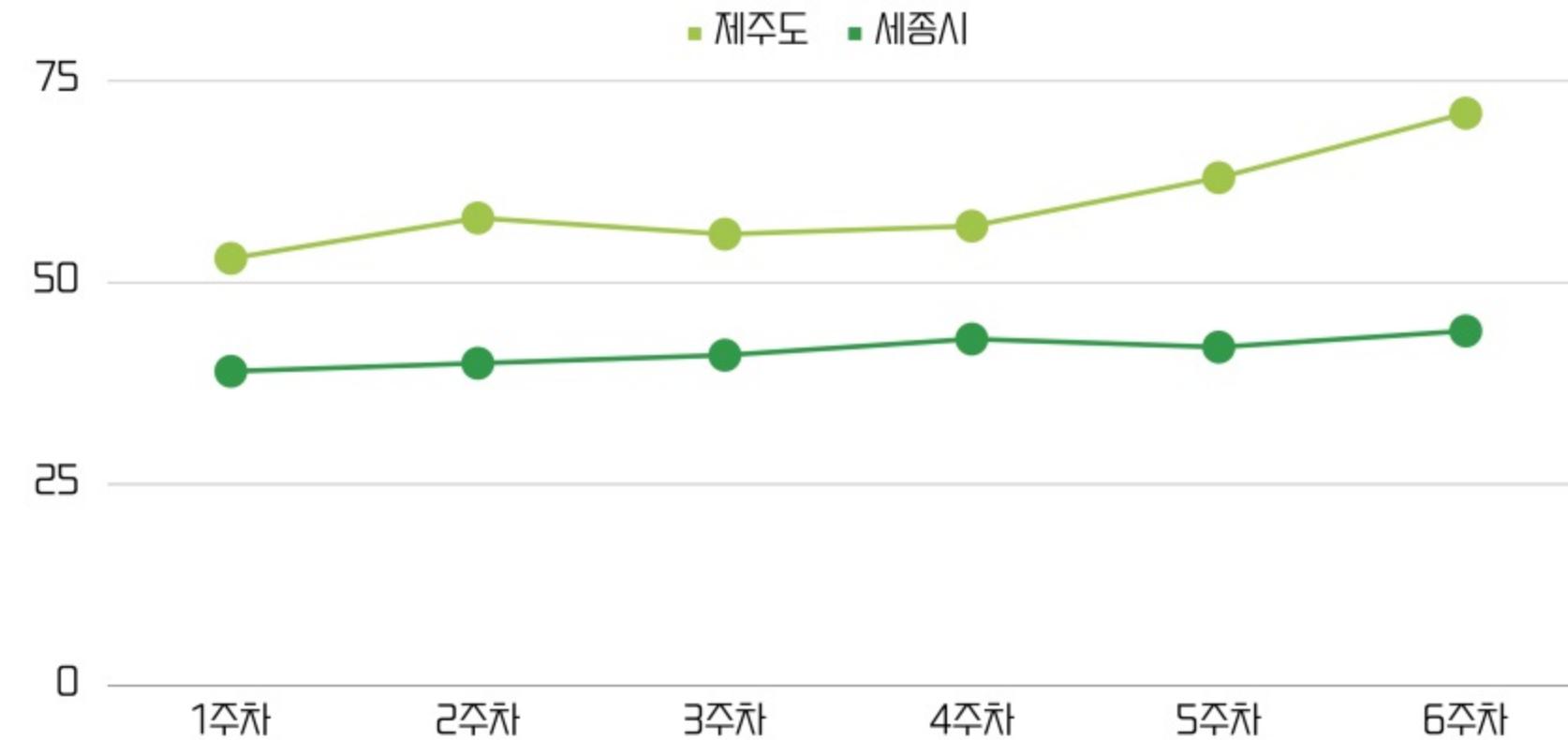
1회용컵 보증금제도 현황

"시행 9개월 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컵 260만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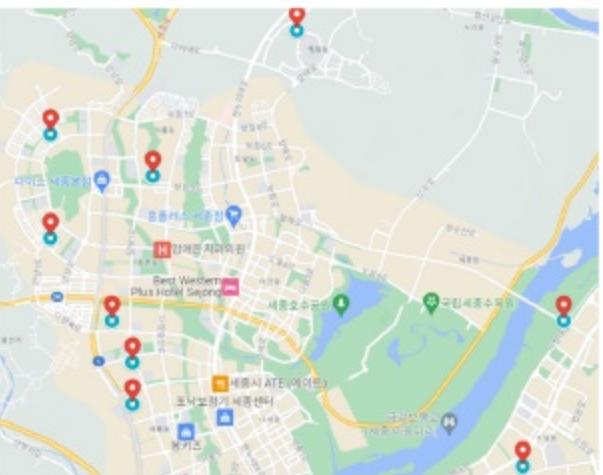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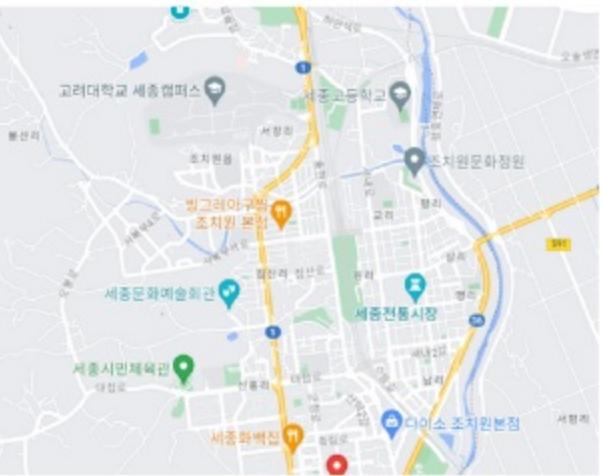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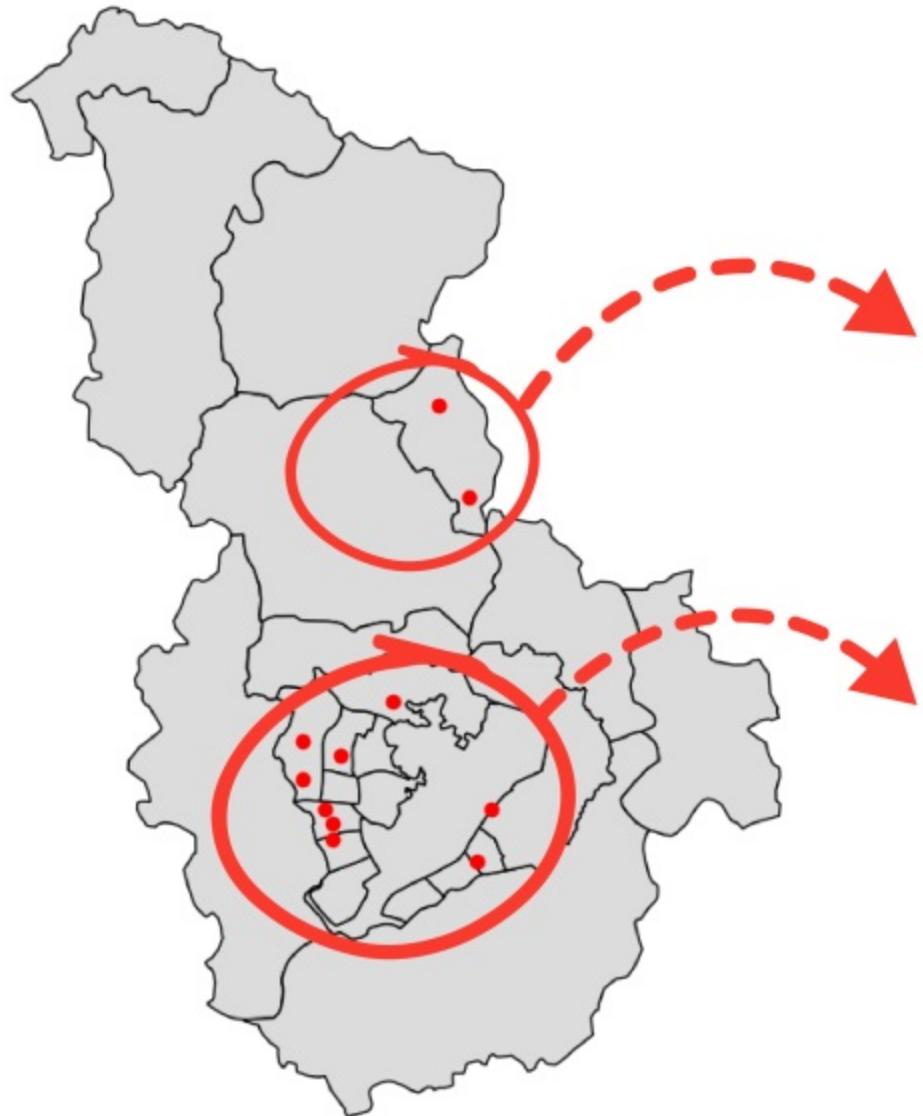
연합뉴스

7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주별 반환율을 보면 제주는 '51%→53%→58%→56%→57%→63%'로 상승세가 뚜렷하고 세종은 39%~44%로 40%대를 유지 중이다. 세종 반환이 지난 3월 40%대에 들어선 뒤 그 수준을 지키고 있다. 제주는 이달 7일 컵 반환율이 71%로 70%를 돌파하기도 했다.

실제 제주지역 일회용컵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반환량이 1689개에 불과해 반환율은 10%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반환량이 꾸준히 늘어 반환율은 70%에 이르렀다.



최종결과



- 본 분석은 회수율이 높은 제주의 입지선정 방안을 세종시에 대입함
- 11개의 무인회수함 최종 우선 입지 선정 후보지로 선정되었음.
- 기존 무인회수함 위치는 제외하였음.

조치원읍	조치원죽림푸르지모아파트
신안리1 주차장	
마름동	범지기마을 8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다정동	가온마을 3단지 한신더휴아파트
	다정중학교 정문
해밀동	해밀마을 1단지
고운동	함소꽃 어린이공원
	가락마을 3단지 아파트
새롬동	새뜸마을 4단지 캐슬앤파밀리에아파트
반곡동	한국교통연구원
소담동	새샘마을 2단지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